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용서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김 성 찬

임 성 문†

충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피해자가 지각한 가해자 잘못과 용서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때 용서를 두 개의 차원으로 보는 최근 연구경향에 따라 정서적 용서와 결정적 용서로 구분하였다. 충청·전라 지역 대학교에 5개의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총 861명(남 486, 여 375)의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용서와 결정적 용서 각각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정서적·결정적 용서가 더 높은 반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큰 경우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정서적·결정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정서적 용서가 더 높은 반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큰 경우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정서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들에 대한 의의 및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각된 가해자 잘못, 정서적 용서, 결정적 용서,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Tel : 043-261-2190, E-mail : sungmoon@chungbuk.ac.kr

“지하철 7호선 열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오모 씨(70)는 군자역에서 열차에 오르던 김모 씨(77)와 몸이 부딪쳤다. 김 씨가 한마디 사과 없이 다음 역에서 내리자 화가 난 오씨는 김 씨를 따라 쫓아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김 씨는 (중략) 결국 숨졌다(매일경제, 2012년 4월 17일자).” 오늘날은 지하철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처럼 사소하지만 불쾌한 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나 ‘크림빵 빵소니’ 사건처럼 커다란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크든 작든 부당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고,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사고와 정서에 대처하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전략으로 용서에 주목하였다(Maltby, Macaskil, & Gillett, 2007; Worthington & Scherer, 2004).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많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rthington, 2006; Worthington & Scherer, 2004). 즉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더 취약하고 면역체계 기능이 떨어지며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용서는 개인내적 측면에서만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 내적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Cotroneo, 1982; Enright & Fitzgibons, 2000; Hope, 1987; Ritzman, 1987; Smedes, 1984).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화해와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김광수, 2002; 김기범, 임효진, 권명수, 2010; 오영희, 1995; Droll 1984; Shriver, 1995).

그런데 용서는 개인에 따라 분노 해소와 같

은 개인내적인 목적과 관계회복과 같은 대인관계적인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Denton & Martin, 1998; Worthington & Wade, 1999). 최근 Worthington과 Scherer(2004)는 그동안의 용서 연구가 대인관계적 측면만을 다루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용서를 개인내적 측면인 정서적 용서(emotional forgiveness)와 대인관계적 측면인 결정적 용서(decisional forgiveness)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용서는 용서 못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사랑에 기초한 타인 지향적인 정서로 바꾸는 개인내적인 경험이다. 결정적 용서는 가해자에게 복수와 회피를 하지 않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이다. 즉 정서적 용서는 부정적 정서의 변화와 관련되고, 결정적 용서는 부정적 동기의 변화와 관련되며(Worthington & Scherer, 2004), 이 두 가지 유형의 용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과정이다(Exline, Worthington, Hill, & McCullough, 2003; Worthington & Scherer, 2004). 예를 들어, 대인관계 갈등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피해자는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복수하기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친하게 대하기, 가해자와 함께 시간 보내기와 같은 긍정적인 방법을 늘려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진지하게 결정을 했어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완전한 용서를 못했을 수 있다. 만약에 가해자에게 정서적 용서를 한다면 피해자는 분노, 상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거의 없고 동정심,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더 많을 것이다.

용서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이들은 크게 상황적·관계적·개인의 성향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행위

의 잘못(Exline, Baumeister, Bushman, Campbell, & Finkel, 2004), 행위의 고의성(Exline et al., 2004; Girard & Mullet, 1997; Mullet, Houdbine, Laumonier, & Girard, 1998), 행위 결과의 심각성(Girard & Mullet, 1997; Kachadourian, Fincham, & Davila, 2005; McCullough & Hoyt, 2002), 행위에 대한 사과 여부(Darby & Schlenker, 1982; Frantz & Bennisson, 2005; Girard & Mullet, 1997; Weiner, Graham, Peter, & Zmuidinas, 1991),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해자에 대해 호의적인지 아닌지), 행위 결과의 지속여부(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Girard & Mullet, 1997)가 있으며, 관계적 요인으로는 친밀도(Girard & Mullet, 1997), 관계 지속 여부(Weiner et al., 1991), 행복 요인, 헌신 요인, 중요도 요인(Rusbult, Verette, Whitney, Slovik, & Lipkus, 1991) 등이 있다. 개인의 성향적 요인으로는 성격 5요인 중 우호성(배정은, 2006; Berry & Worthington, 2001; Brown, 2003), 외향성(Berry & Worthington, 2001; Brown, 2003), 내향성(Walker & Gorsuch, 2002), 신경증(Berry & Worthington, 2001) 외에도 정서적·인지적 공감(Coleman & Byrd, 2003; Wade & Worthington, 2003), 수줍음(Neto & Mullet, 2004), 자기애적 성향(Sandage, Worthington, Hight, & Berry, 2000)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상대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게 된다(Scher & Darley, 1997; Tavuchis, 1991).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과를 한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보다 용서를 더 많이 받았고(Ohbuchi, Kameda, & Agarie, 1989),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용서를 더 받았다(Weiner et al., 1991). 또한 사과나 보상이 있으면 복수 동기가 감소하였

고(Bono, McCullough, & Root, 2008), 의료사고 상황에서 의료진이 사고에 대하여 해명만 했을 때보다 사과를 함께 했을 때 피해자의 분노가 감소하고 용서가 증가하였다(이미경, 2011). 그러나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가해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사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예를 들어, 가해가 고의적이라고 지각되면 사과를 해도 용서가 촉진되지 않았다(Struthers, Eaton, Santelli, Uchiyama, & Shirvani, 2008).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피해자가 지각한 가해자의 잘못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은 정서적 용서($r = -.35$), 결정적 용서($r = -.25$)와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Pun, 2011). 지각된 가해자 잘못은 가해사건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판단이다(Pun, 2011). 앞에서 언급한 지하철 사건처럼 가해자의 잘못이 사소할 때 사과를 받으면 용서하기 쉬울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조그만 잘못에도 용서를 못 하기도 한다. 반면 최근 세월호 사고처럼 가해자의 잘못이 크면 사과를 받더라도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잘못이 큰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기도 한다. 연쇄살인범에게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인범을 용서하고 사형을 반대했던 사연(경향신문, 2007, 12, 21)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반(反)인종분리정책 운동을 돕던 딸을 죽인 두 흑인 청년들을 용서한 미국 백인 부부의 사연(Easterbrook, 2003/2005)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지각한 가해자의 잘못이 용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그 정도를 완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해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지각하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로 볼 수 있고,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다양한 결과에 개인 심리적 특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이 밝혀져 왔다 (Abramson, Alloy, & Metalsky, 1998; Alloy, Hartlage, & Abramson, 1988;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 스트레스와 부정적 결과 사이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개인 심리적 특성 중 자존감이 특별히 관심을 받아왔다.

자존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자기가치감을 의미한다 (Rosenberg, 1965). Branden(1992/1994)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모험심이 적고 의존심이 많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자존감은 삶의 과정 중 다양한 부정적 문제 유발에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ser, Galinsky, & Richman, 1999; Kessler, Turner, & House, 1998; Rowley & Feather, 1987). 즉 자존감은 사회적 거부와 자기평가의 관계(Sommer & Baumeister, 2002),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구차순, 김동환, 2013),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황상미, 정현희, 2012), 부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윤명숙, 최정민, 2011), 용서 지시와 용서 반응의 관계(Card, Milich, Harris, & Kearns, 2007) 등 다양한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이 지각된 차별, 지각된 불공평, 분노 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불안 및 정신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강석기, 한상훈, 박명신, 2013; Corning, 2002; 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 Longmore & DeMaris, 1997).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존감과 상호작용하여 아동(Kliewer & Sandier, 1992), 청소년(Moksnes, Moljord, Espnes, & Byrne, 2010), 대학생(Eisenbarth, 2012; Whisman & Kwon, 1993)의 우울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최인재, 2014) 혹은 기혼여성들의 생활스트레스(김미래, 2007)도 자존감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스트레스는 부적응적 문제뿐만 아니라 긍정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관계가 자존감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혈액투석노인의 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가 밝혀졌다(심옥수, 2009). 즉 자존감이 높은 혈액투석노인은 스트레스 정도에 관계없이 자존감이 낮은 혈액투석노인보다 더 높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각되더라도 자존감이 높다면 이는 용서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상당수의 연구들은 자존감과 광범위한 특성들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자존감을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하고, 높은 자존감은 ‘좋은 것’, 낮은 자존감은 ‘나쁜 것’으로 취급해왔다(Kernis, 2003). 그런데 근래 몇몇 연구들에서 단순히 높은 자존감이 개인의 적응과 사회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고 비난에 대해 더 방어적이었다(Baumeister, 1999;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laine & Crocker, 1993; Bushman & Baumeister, 1998). 이에 다양한 시각에서 자존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연구자들은 의식적인 자기평가인 명시적 자존감(explicit self-esteem)과는 다른 자동적이고 경험적인 자기평가인 암묵적 자존감(implicit self-esteem)에 주목하고 있다(Cockerham, Stopa, Bell, & Gregg, 2009; DeJong, 2002; DeRaedt, Schacht, Franck, & DeHouwer, 2006; Stieger & Burger, 2010; Zeigler-Hill, 2006). 암묵적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해 등장한 여러 검사들 중에 신뢰도와 타당도 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가 이름 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검사(Initials and Birthday Number Preference Task)이다. 이 과제는 사람들의 이름 이니셜과 생일 숫자는 자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글자나 숫자에 비해 그 이니셜과 생일 숫자를 얼마나 더 좋아하느냐가 자기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반영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Nuttin, 198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과 상관이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의 상관만을 보이며 서로 다른 결과를 예견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Farnham, Greenwald, & Banaji, 1999; Greenwald & Farnham, 2000; 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 Correll, 2003).

연구자들은 암묵적 자존감이 명시적 자존감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Bosson, Brown, Zeigler-Hill, & Swann, 2003; Jordan et al., 2003). 많은 연구에서 명시적 자존감이 높고 암묵적 자존감은 낮은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 즉 방어적 자존감(Jordan et al., 2003) 혹은 취약한 자존감(Bosson et al., 2003)의 사람은 자기고양(Bosson et al., 2003;

Kernis et al., 2005)과 방어성(Jordan et al., 2003; McGregor & Marigold, 2003; McGregor, Nail, Marigold, & Kang, 2005; Schröder-Abé et al., 2007) 그리고 편견(Jordan, Spencer, & Zanna, 2005)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자존감이 낮고 암묵적 자존감은 높은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 즉 손상된 자존감(Schröder-Abé, Rudolph, Wiesner, & Schütz, 2007)의 사람 또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모두 낮은 사람보다 자기 고양(Bosson et al., 2003)과 방어성(Jordan, Logel, Spender, Zanna, & Whitfield, 2009; Jordan et al., 2003)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불일치는 연인관계에서의 배신(Zeigler-Hill, Fulton, & McLemore, 2012), 연인관계에서의 질투(Stieger, Preyss, & Voracek, 2012), 경계선 성격장애(Vater, Schröder-Abé, Schütz, Lammers, & Roepke, 2010), 부적응적 완벽주의(Zeigler-Hill & Terry, 2007), 우울증상, 자살환상, 외로움(Creemers, Scholte, Engels, Prinstein, & Wiers, 2012), 사회불안과 우울(DeJong, Sportel, DeHullu, & Nauta, 2012), 공격성(김효주, 2010; 박혜원, 하정연, 문지혜, 2011)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에 영향 미치는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단 한 편이 발견되는데, 사과와 용서의 관계에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Eaton, Struthers, Shomrony, & Santelli, 2007)이다. Eaton 등(2007)은 명시적 자존감은 높고 암묵적 자존

감이 낮은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기 고양(Bosson et al., 2003), 방어성(Jordan et al., 2003), 낮은 공감 등으로 인해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과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명시적 자존감이 높고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방어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았을 때 가해자의 잘못이 작아도 용서를 잘하지 못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개인내적인 용서와 대인관계적인 용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di 등(2007)은 낮은 자존감과 달리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개인내적인 용서를 통해 가해사건으로 발생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라는 지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대인관계적인 용서를 통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시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지각된 가해자의 잘못과 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정서적 용서와 결정적 용서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부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술한 선행연구와 추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각하더라도 명시적 자존감이 높다면 용서 수준을 낮추지 않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적 자존감이

이 높고 암묵적 자존감이 낮을수록 가해자의 잘못이 작아도 용서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은 정서적·결정적 용서와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은 정서적·결정적 용서와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충청·전라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899부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8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861부(95.8%)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486명(56.4%), 여학생은 375명(43.6%)이었고 평균연령은 20.76세($SD = 2.19$)였다.

측정도구

정서적 용서 척도

Worthington, Hook, Utsey, Williams와 Neil (2007b)이 개발한 정서적 용서 척도(Emotional Forgiveness Scale; EF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본 연구자가 초벌번역을 한 뒤,

영어에 능통한 세 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검토하여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번역된 문항을 캐나다에서 20여 년간 거주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교포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이 역번역된 문항을 원척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의미가 같은지를 교차확인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총 8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며, 3번 문항(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 때문에 괴롭다), 5번 문항(그 일을 생각하면 몹시 화난다), 7번 문항(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에 대해 분한 마음이 든다)은 역채점 문항이다. Worthington 등(2007b)이 보고한 Cronbach's α 는 .69~.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결정적 용서 척도

Worthington 등(2007b)이 개발한 결정적 용서 척도(Decisional Forgiveness Scale; DF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정서적 용서 척도와 동일하였다. 총 8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며, 1번 문항(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방식 그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시도할 의향이 있다), 2번 문항(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돕지 않으려 할 것이다), 4번 문항(그 사람에게 양감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6번 문항(그 사람에게 양감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7번 문항(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은 역채점 문항이다. Worthington 등(2007b)이 보고한 Cronbach's α 는 .82~.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자존감 척도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이다. 총 10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며, 3번 문항(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5번 문항(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8번 문항(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번 문항(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0번 문항(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은 역채점 문항이다. 한국판의 Cronbach's α 는 .89이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이름철자 및 생일숫자 선호 검사(Initials and Birthday Number Preference Task; IBPT)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중의 하나로 Nuttin(1985)의 이름 철자 효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효주(2010)가 알파벳 철자보다 모국어인 한글 철자에 대해 좀 더 자동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하고 한글 자음 철자를 포함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알파벳 철자들과 한글 자음들, 그리고 1에서 35까지의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IBPT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Kitayama와 Karasawa(1997)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철자와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를 구성하기 위해 해당철자와 숫자가 이름이나 생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각 철자와 숫자의 선호점수 평균을 구했다. 두 번째로 참가자들이 평정한 선호 점수에서 기본적인 선호도를 빼서, 각각의 철자와 숫자에 대한 상대적 선호 점수를 구했다. 세 번째로 참여자들의 이름철자나 생일숫자에 대한 상대적 선호 점수의 평균에서 그렇지 않은 철자나 숫자들의 상대적인 선호 점수의 평균을 빼서,

자기이름철자나 생일 숫자에 대한 선호수치를 구했고, 마지막으로 이 선호수치를 더해 IBPT 점수를 구성하였다(Dijksterhuis, 2004; Koole & Pelham, 2003). 참가자들은 질문지 상에서 Jones, Pelham, Mirenberg과 Hetts(2002)의 방법에 따라 각각의 알파벳과 숫자를 “당신의 직관을 믿고, 마음이 가는 대로 빠르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평가하라”는 지시문을 읽었다. 설문지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설문지 마지막 장에 그들의 이름 이니셜과 생일 숫자를 적었다. Koole, Dijksterhuis와 Knippenberg(2001)가 4주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64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지 실시 전에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먼저 참가자에게 피해를 준 친구가 사과를 한 가상 상황을 설문지로 제시한 후, 시나리오 속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장면들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상상하며 읽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는 조사 대상이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전세훈(2007)이 창작한 2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해자 잘못이 큰 상황 1가지와 Fehr와 Gelfand(2010)가 창작한 시나리오 중에서 효과적인 사과 3가지를 받는 상황을 합한 후 원활한 내용의 흐름을 위해 일부 문구를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대학 과제 수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은 후 상대방의 사과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참가자에게 제시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당신은 평소에 태영과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다. 당신은 이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이 과목의 낙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과제를 준비했다. 하지만 태영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과제를 미뤘고, 끝내 기한 내에 둘 다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조원들 모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당신은 이 과목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태영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네가 이 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너의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고통에 대해 걱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우리 조를 실망시켰다. 나는 우리 조에서 해야 할 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좋은 집단 구성원이 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너의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뭐든 돕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보상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가상 상황을 참가자에게 제시한 후 지각된 가해자 잘못을 측정하기 위해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은 잘못되었다’라는 문항에 7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용서 척도와 결정적 용서 척도, 명시적 자존감 척도, 암묵적 자존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예언변인에 대해 센터링을 한 후 투입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리고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R^2 변화량의 유의성으로 조절효과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정적 용서($r = .577,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이 정서적·결정적 용서에 미치는 영향

결 과

전체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은 정서적 용서($r = -.450, p < .001$), 결정적 용서($r = -.259, p < .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명시적 자존감($r = .059, p > .05$), 암묵적 자존감($r = .061, p > .05$)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명시적 자존감은 정서적 용서($r = .070, p < .05$), 결정적 용서($r = .141,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암묵적 자존감($r = .063, p > .05$)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암묵적 자존감은 정서적 용서($r = -.043, p > .05$), 결정적 용서($r = .026, p > .05$)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용서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용서의 관계에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각 변인간의 이원상호작용항들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세 변인으로 이루어진 삼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3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용서

표 2를 보면, 첫 번째로 정서적 용서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beta = -.455, p < .001$)과 명시적 자존감($\beta = .098, p < .01$)이 정서적 용서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암묵적 자존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beta = -.022, p > .05$), 이때 정서적 용서에 대한 설명량은 21.2%로 나타났다.

표 1. 전체 변인들의 상호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 = 861)

	1	2	3	4	5	M	SD
1. 지각된 가해자 잘못	-					5.920	1.079
2. 명시적 자존감	.059	-				3.572	.631
3. 암묵적 자존감	.061	.063	-			.457	.710
4. 정서적 용서	-.450***	.070*	-.043	-		2.474	.635
5. 결정적 용서	-.259***	.141***	.026	.577***	-	3.590	.728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B	SE B	β	R ²	ΔR^2	ΔF
정 서 적 용 서	1	지각된 가해자 잘못(A)	-.268	.018	-.455***	.212	.212	77.018***
		명시적 자존감(B)	.099	.031	.098**			
		암묵적 자존감(C)	-.020	.027	-.022			
	2	A	-.269	.018	-.458***	.218	.005	1.955
		B	.111	.031	.110***			
		C	-.022	.027	-.025			
		A×B	-.068	.032	-.066*			
		A×C	-.017	.025	-.021			
		B×C	-.021	.039	-.017			
	3	A	-.267	.018	-.453***	.222	.004	4.288*
		B	.116	.031	.115***			
		C	-.023	.027	-.026			
		A×B	-.074	.032	-.072*			
		A×C	-.024	.025	-.031			
		B×C	.008	.042	.006			
A×B×C	-.085	.041	-.068*					

* $p < .05$, ** $p < .01$, *** $p < .001$

두 번째로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2단계에서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66, p < .05$), 이 단계에서는 0.5%의 설명량의 변화를 나타냈다.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도식화하여(Aiken & West, 1991)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정서적 용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큰 경우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정서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3단계에서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68, p < .05$), 이 단계에서는 0.4%의 설명량의 변화를 나타냈다. 삼원상호작용이 정서적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암묵적 자존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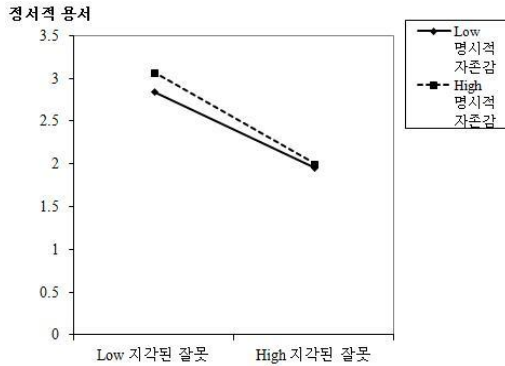


그림 1.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양상

감의 상호작용을 첨가한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분은 유의미 하였고($\Delta R^2 = .019, p < .01$), 상호작용항은 정서적 용서에 영향을 미친 반면($\beta = -.144, p < .01$),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상호작용을 첨가한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분은 유의미 하지 않았고($\Delta R^2 = .000, p > .05$), 상호작용항은 정서적 용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13, p > .05$).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양상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정서적 용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큰 경우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정서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 용서

표 3을 보면, 첫 번째로 결정적 용서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beta = -.270, p < .001$)과 명시적 자존감($\beta = .155, p < .001$)이 결정적 용서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암묵적 자존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beta = .032, p > .05$), 이때 결정적 용서에 대한 설명량은 9.3%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2단계에서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2, p < .01$), 이 단계에서는 1%의 설명량의 변화를 나타냈다. 결정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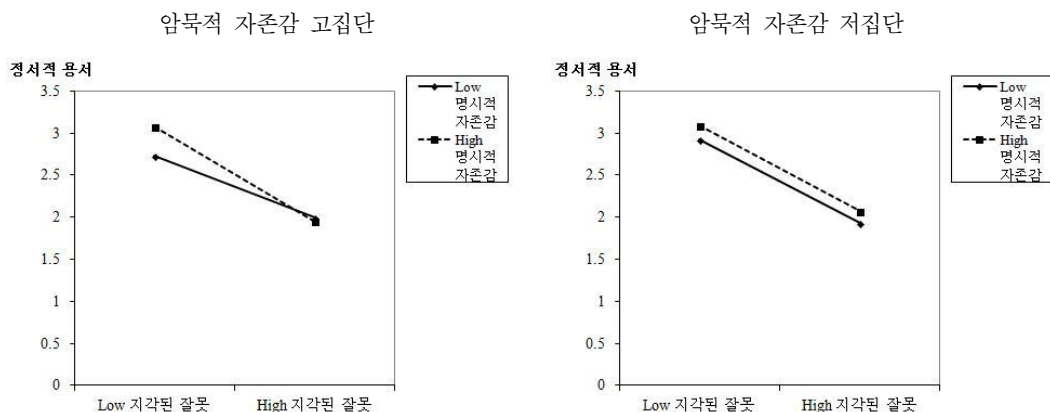


그림 2.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양상

표 3. 결정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B	SE B	β	R^2	ΔR^2	ΔF
결정적 용서	1	지각된 가해자 잘못(A)	-.182	.022	-.270***	.093	.093	29.149***
		명시적 자존감(B)	.179	.038	.155***			
		암묵적 자존감(C)	.033	.033	.032			
	2	A	-.185	.022	-.275***	.103	.010	3.268*
		B	.196	.038	.170***			
		C	.030	.033	.030			
		A×B	-.109	.039	-.092**			
		A×C	-.035	.030	-.038			
		B×C	.003	.048	.002			
	3	A	-.185	.022	-.275***	.103	.000	.038
		B	.197	.038	.171***			
		C	.030	.033	.029			
		A×B	-.109	.039	-.093**			
		A×C	-.036	.030	-.039			
		B×C	.006	.051	.004			
	A×B×C	-.010	.051	-.0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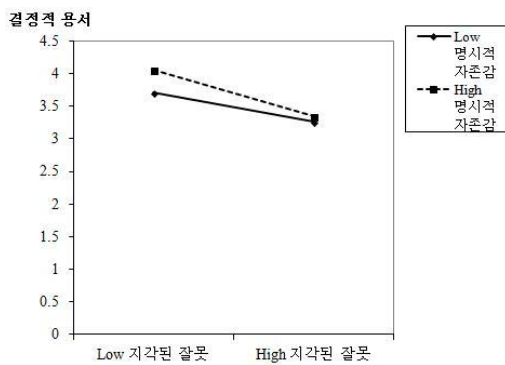


그림 3. 결정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양상

상호작용 효과 양상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결정적 용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큰 경우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결정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3단계에서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Delta R^2 = .000, p > .05$).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가 사과를 했을 때 피해자가 지각한 가해자 잘못이 정서적·결정적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명시적·암묵적 자존감이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정서적·결정적 용서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차례대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정서적·결정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명시적 자존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은 정서적 용서와 결정적 용서가 유사하였다. 즉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정서적·결정적 용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작다고 지각하면 정서적 용서는 물론이고 결정적 용서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Branden, 1992/1994),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Peplau, Miceli, & Morasch, 1982)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각했을 때는 자존감 수준에 따른 정서적·결정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의 잘못의 영향을 조절하는 완전한 보호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정서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

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작은 경우 명시적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정서적 용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가해자 잘못이 큰 경우 명시적 자존감 수준에 따른 정서적 용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해자의 잘못이 작다고 지각하더라도 명시적 자존감이 높고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방어적 자존감)’의 사람은 명시적, 암묵적 두 자존감이 모두 높은 사람에 비해서 정서적 용서를 적게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결과는 가해자가 사과하였고 가해자의 잘못이 작다고 지각하더라도, 명시적 자존감이 낮고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손상된 자존감)’의 사람은 명시적, 암묵적 두 자존감이 모두 높은 사람에 비해서 정서적 용서를 적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심리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연인관계에서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의 여성이 다른 자존감 유형의 여성보다 질투가 높고(Stieger et al., 2012), 다른 자존감 유형보다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일 때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가장 높게 예측한다는 연구(Vater et al., 2010),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불일치 수준에 따라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김효주, 2010), 낮은 자존감과 자기애가 높을 때 공격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연구(서수균, 권석만, 2002; 채순례, 2012), 영재 남아를 대상으로 한 두 자존감의 관련성에서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일 때가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일 때보다 문제행동(신체증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박혜원, 하정연, 문지혜, 2011),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에서 두 자존감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 증상, 자살 생각, 외로움이 증가한 반면 '불일치하는 높은 자존감'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Creemers et al., 2012)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가해자가 사과했을 때 결정적 용서에 대한 지각된 가해자 잘못,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치하는 자존감과 불일치하는 자존감은 정서적 용서와 달리 결정적 용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정적 용서의 경우, 사람들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불일치 수준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용서는 용서 못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사랑에 기초한 타인 지향적인 정서로 바꾸는 개인내적인 경험인 반면, 결정적 용서는 가해자에게 복수와 회피를 하지 않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결과는 한국 사회가 관계 중심적 인간관의 집단주의 사회인 것에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Hook, Worthington과 Utsey(2009)가 관계 회복과 사회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잘 용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결정적 용서를 더 자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추론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권에 따른 정서적 용서와 결정적 용서의 차이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정서

적 용서를 개입해 나갈 때 명시적 자존감 외에도 암묵적 자존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가해자의 조그만 잘못에도 정서적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불일치 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 특히 암묵적 자존감이 높더라도 명시적 자존감이 낮은 불일치하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서 가해자의 조그만 잘못에도 더욱 정서적 용서를 못 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반면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각했을 때는 암묵적 자존감이 높더라도 명시적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른 정서적 용서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두 자존감이 모두 높은 사람조차도 가해자 잘못이 크다고 지각하면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된 가해자 잘못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이 0.4~1%로 나타나 설명력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존감 외에 용서수준을 높이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석기, 한상훈, 박명신 (2013). 고등학생의 분노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4(1), 91-114.
- 경향신문 (2007, 12, 21). 치열한 원망의 끝은 용서일까. 29면.
- 구차순, 김동환 (2013).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

- 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225-255.
- 김광수 (2002). 용서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김기범, 임효진, 권명수 (2010). 용서의 심리학과 종교. *실천신학*, 56, 168-202.
- 김미례 (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61-777.
- 김효주 (2010). 자기애 성향자들의 명시적·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매일경제 (2012, 4, 17). 70대 노인들 ‘지하철 잔혹사’. 29면.
- 박상관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와 정서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 하정연, 문지혜 (2011). 영재와 일반남아의 자존감 비교 및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별 신체증상 및 공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21(1), 83-105.
- 배정은 (2006). 성격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심옥수 (2009). 혈액투석노인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윤명숙, 최정민 (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55-78.
- 이미경 (2011). 의료사고 상황에서 사과와 일반적 신뢰가 분노와 용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7-290.
- 전세훈 (2007). 용서행동의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순례 (2012).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 자기존중감, 자기애성 성격과 공격성의 관계.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219-243.
- 황상미, 정현희 (2012).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1-20.
- Abramson, L. Y., Alloy, L. B., & Metalsky, G. I. (1988).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Toward an adequate evaluation of the theories' validities. In L. B. Alloy (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pp.3-30). New York: Guilford Pres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lloy, L. B., Hartlage, S., & Abramson, L. Y. (1988). Testing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 theories of depression: Issues of research desig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In L. B. Alloy (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pp.31-73). New York: Guilford Press.
- Berry, J. W., & Worthington, E. L., Jr. (2001). Forgiveness, relationship quality, stress while imagining relationship event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47-455.
- Baumeister, R. F. (1999). Low self-esteem does not cause aggression. *APA Monitor, 30*.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laine, B., & Crocker, J. (1993). Self-esteem and self-serving biases in reac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n integrative review.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55-85). Hillsdale, NJ: Erlbaum.
- Bono, G., McCullough, M. E., & Root, L. M.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Two longitudinal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2), 182-195.
- Bosson, J. K., Swann, W. B., Jr., & Pennebaker, J. W. (2000). Stalking the perfect meas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31-643.
- Bosson, J. K., Brown, R. P., Zeigler-Hill, V., & Swann, W. B., Jr. (2003). Self-enhancement tendencies among people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2*, 169-187.
- Branden, N. (1994). 나를 존중하는 삶: 삶의 활력: 자기존중감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71.
- Brown, J. D., & Dutton, K. A. (1995). The thrill of victory, the complexity of defeat: Self-esteem and people's emotional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712-722.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rdi, M., Milich, R., Harris, M. J., & Kearns, E. (2007). Self-esteem moderates the response to forgiveness instructions among women with a history of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4), 804-819.
- Cockerham, E., Stopa, L., Bell, L., & Gregg, A. (2009). Implicit self-esteem in bulimia nervosa.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2), 265-273.
- Coleman, P. K., & Byrd, C. P. (2003). Interpersonal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4), 301-314.
- Corning, A. F. (2002). Self-esteem as a moderator

-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17-126.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pp.241-244), New York: Brunner/Maxel, 241-244.
- Creemers, D. H., Scholte, R. H., Engels, R. C., Prinstein, M. J., & Wiers, R. W. (2012).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as concurrent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depressive symptoms, and lonelines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3(1), 638-646.
- Darby, B. W., & Schlenker, B. R. (1982). Children's reactions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42-753.
- DeJong, P. J. (2002). Implicit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Differential self-favouring effects in high and low anxious individua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5), 501-508.
- DeJong, P. J., Sportel, B. E., DeHullu, E., & Nauta, M. H. (2012). Co-occurrence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in adolescence: Differential links with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Psychological medicine*, 42(3), 475-484.
- DeRaedt, R., Schacht, R., Franck, E., & DeHouwer, J. (2006). Self-esteem and depression revisited: Implicit positive self-esteem in depressed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7), 1017-1028.
- Denton, R. T., & Martin, M. W. (1998). Defining forgivenes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rocess and ro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81-292.
- Dijksterhuis, A. (2004). Think different: The merits of unconscious thought in preference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586-598.
- Droll, D. M. (1984). *Forgiveness: Theory and resear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vada-Reno.
- Easterbrook, G. (2007). 진보의 역설: 우리는 왜 더 잘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Progress paradox: How life gets better while people feel worse*]. (박정숙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Eaton, J., Struthers, C. W., Shomrony, A., & Santelli, A. G. (2007). When apologies fail: The moderating effect of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on apology and forgiveness. *Self and Identity*, 6, 209-222.
- Eisenbarth, C. (2012). Does Self-Esteem Moderate the Relations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College Student Journal*, 46(1), 149-157.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PA.
- Exline, J. J., Worthington, E. L., Hill, P., & McCullough, M. E. (2003). Forgiveness and justice: A research agenda for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337-348.
- Exline, J. J., Baumeister, R. F., Bushman, B. J., Campbell, W. K., & Finkel, E. J. (2004). Too proud to let go: Narcissistic entitlement

- as a barrier to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894-912.
- Farnham, S. D.,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9). Implicit self-esteem. In D. Abrams & M. A. Hogg (Ed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 (pp.230-248). Oxford, UK: Blackwell.
- Fehr, R., & Gelfand, M. J. (2010). When apologies work: How matching apology components to victims' self-construals facilitates forgiven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3(1), 37-50.
- Frantz, C. M., & Bennis, C. (2005). Better late than early: The influence of timing on apology effectiv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01-20.
- Girard, M., & Mullet, E. (1997). Propensity to forgive in adolescents, young adults, older adults,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220.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1038.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 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3), 308-319.
- Hook, J. N., Worthington, E. L., Jr., & Utsey, S. O. (2009). Collectivism, forgiveness, and social harmon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169-183.
- Hope, D. (1987). The healing paradox of forgiveness. *Psychotherapy*, 24, 240-244.
- Jones, J. T., Pelham, B. W., Mirenberg, M. C., & Hetts, J. J. (2002). Name letter preferences are not merely mere exposure: Implicit egotism as self-regul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2), 170-177.
- Jordan, C. H., Spencer, S. J., & Zanna, M. P. (2005). Types of high self-esteem and prejudice: How implicit self-esteem relates to ethnic discrimination among high explicit self-esteem individ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693-702.
- Jordan C. H., Logel C., Spencer S. J., Zanna M. P., Whitfield M. L. (2009). The heterogeneity of self-esteem: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Petty R. E., Fazio R. H., Briñol P. (Eds.), *Attitudes: Insights from the new implicit measures* (pp. 251-281).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Jordan, C. H., Spencer, S. J., Zanna, M. P., Hoshino-Browne, E., & Correll, J. (2003). Secure and defensive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69-978.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5). Attitudinal ambivalence, rumination, and forgiveness of partner transgressions in marria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34-342.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 1-26.
- Kernis, M. H., Abend, T. A., Goldman, B. M., Shrira, I., Paradise, A. N., & Hampton, C. (2005). Self-serving responses arising from discrepancies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4(4), 311-330.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

-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69-85.
- Kitayama, S., & Karasawa, M. (1997). Implicit self-esteem in japan: Name letter and birthday nu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7), 736-742.
- Kliewer, W., & Sandier, I. N. (1992).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939-413.
- Koole, S. L., & Pelham, B. W. (2003). On the nat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case of the name letter effect. In S. Fein & S. J. Spencer (Eds.), *Motivated social percep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 9, pp.93-11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oole, S. L.,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2001). What's in a name: Implicit self-esteem and the automatic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69-685.
- Longmore, M. A., & De Maris, A. (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72-184.
- Maltby, J., Macaskill, A., & Gillett, R. (2007). The cognitive nature of forgiveness: Using cognitive strategies of primary appraisal and coping to describe the process of forgiv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6), 555-566.
- McCullough, M. E., & Hoyt, W. T. (2002). Transgression-related motivational dispositions: Personality substrates of forgiveness and their links to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556-1573.
- McGregor, I., & Marigold, D. (2003). Defensive zeal and the uncertain self: What makes you so 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38-852.
- McGregor, I., Nail, P. R., Marigold, D. C., & Kang, S. J. (2005). Defensive pride and consensus: Strength in imaginary nu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978-996.
- Moksnes, U. K., Moljord, I. E. O., Espnes, G. A., & Byrne, D. G.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emotional states in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430-435.
- Mullet, E., Houdbine, A., Laumonier, S., & Girard, M. (1998). Forgiveness: Factorial structure in a sample of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European Psychologist*, 3, 289-297.
- Neto, F., & Mullet, E. (2004). Personality, self-esteem, and self-construal as correlates of forgive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15-30.
- Nuttin, J. M. (1985). Narcissism beyond Gestalt awareness: The name letter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353-361.
- Ohbuchi, K., Kameda, M., & Agarie, N. (1989). Apology as aggression control: Its role in mediating appraisal of and response to ha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19-227.
- Peplau, L. A., Miceli, M., & Morasch, B. (1982).

- Loneliness and self-evaluation.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35-151). New York: Wiley-Interscience.
- Pun, Y. L. (2011).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predicting decisional and emotional forgiveness among Chinese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 Ritzman, T. A. (1987). Forgiveness: Its role in therapy. *Medical Hypnoanalysis Journal*, 2(1), 4-1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ley, K. M., & Feather, N. T. (1987). The impact of unemployment in relation to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4), 323-332.
- Rusbult, C. E., Verette, J., Whitney, G. A., Slovick, L. P.,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3-78.
-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Hight, T. L., & Berry, J. W. (2000). Seeking forgiveness: Theoretical context and an initial empirical stud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1), 21-35.
- Scher, S. J., & Darley, J. M. (1997). How effective are the things people say to apologize? Effects of the realization of the apology speech act.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6(1), 127-140.
- Schröder-Abé, M., Rudolph, A., Wiesner, A., & Schütz, A. (2007). Self-esteem discrepancies and defensive reactions to social feed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 174-183.
- Shriver, D. W. (1995). *An ethic for enemies: Forgiveness i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edes, L. B. (1984).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Row.
- Sommer, K. L., & Baumeister, R. F. (2002). Self-evaluation, persistence, and performance following implicit rejection: The role of trait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7), 926-938.
- Stieger, S., & Burger, C. (2010).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the context of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6), 681-688.
- Stieger, S., Preyss, A. V., & Voracek, M. (2012). Romantic jealousy and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1), 51-55.
- Struthers, C. W., Eaton, J., Santelli, A. G., Uchiyama, M., & Shirvani, N. (2008). The effects of attributions of intent and apology on forgiveness: When saying sorry may not help the st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4), 983-992.
- Tavuchis, N. (1991). *Mea culpa: A sociology of apology and reconcili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ter, A., Schröder-Abé, M., Schütz, A., Lammers, C. H., & Roepke, S. (2010). Discrepancies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are

- linked to symptom sever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1(4), 357-364.
- Wade, N. G., & Worthington, E. L. (2003).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ses: Is forgiveness the only way to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3), 343-353.
- Walker, D. F., & Gorsuch, R. L. (2002). Forgive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27-1137.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H.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Weigel, C., Wertlieb, D., & Feldstein, M. (1989). Perceptions of control, competence, and contingency as influences on the stress-behavior symptom relation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3), 456-464.
- Weiner, B., Graham, S., Peter, O., & Zmuidinas, M. (1991). Public confession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59, 281-312.
- Whisman, M. A., & Kwon, P. (1993). Life stress and dysphoria: The role of self-esteem and hope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54-1060.
- Worthington, E. L., Jr.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w York: Brunner-Routledge.
- Worthington, E. L., Jr., & Scherer, M. (2004). Forgiveness is an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that can reduce health risks and promote health resilience: Theory, review, and hypotheses. *Psychology and Health*, 19(3), 385-405.
- Worthington, E. L., Jr., & Wade, N. G. (1999). The social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 Worthington, E. L., Jr., Hook, J. N., Utsey, S. O., Williams, J. K., & Neil, R. L. (2007b). *Decisional and Emotional Forg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Positive Psychology Summit, Washington DC, October 5, 2007.
- Zeigler-Hill, V. (2006). Discrepancie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 esteem: Implications for narcissism and self esteem in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74(1), 119-144.
- Zeigler-Hill, V., & Terry, C. (2007). Perfectionism and explicit self-esteem: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6(2-3), 137-153.
- Zeigler-Hill, V., Fulton, J. J., & McLemore, C. (2012). Discrepancies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Implications for Mate Retention Strategies and Perceived Infidel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6), 670-686.

논문 투고일 : 2015. 01. 07

1차 심사일 : 2015. 02. 07

게재 확정일 : 2015. 02. 2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and Forgiveness when Receiving Apologies: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ung Chan Ghim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and forgiveness defined as Worthington and Scherer's (2004) emotional forgiveness and decisional forgiveness when receiving apologies. Data collected from 861(486 males, 375 females)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emotional forgiveness,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and explicit self-esteem was significant. And on decisional forgiveness,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and explicit self-esteem was significant. The effect of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on emotional and decisional forgiveness for individuals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is stronger than its impact for individuals with low self-esteem. These findings show that explicit self-esteem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giveness in college students through interactions with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Second, on emotional forgiveness,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explicit self-esteem, and implicit self-esteem was significant. The effect of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on emotional forgiveness for individuals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having high implicit self-esteem is stronger than its impact for individuals with low explicit self-esteem having high implicit self-esteem. These findings show that discrepancie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are detrimental to emotional forgiveness. But, on decisional forgiveness,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transgression wrongness, explicit self-esteem, and implicit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wrongness, Emotional forgiveness, Decisional forgiveness, Explicit self-esteem, Implicit self-esteem